



변곡점의 영역에 진입한 한국경제

1. 대외교역에서의 둔화세

- 수출입물가지수는 두 지표 모두 고점 통과 후 하락하는 모습.
-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 한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지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국가 차원에서의 마진 둔화가 발생.

물가의 진정세가 한국의 수출물가를 더욱 빠르게 하락시키면서 교역조건이 악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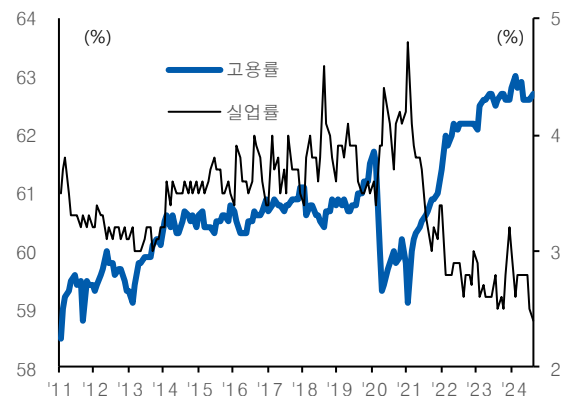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매우 안정적인 고용지표

- 8월 기준 계절조정 실업률은 2.4%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낮아진 결과로, 지난해 12월 당시 실업률인 3.2%에서 지속적 하락.
- 긍정적 흐름의 배경에는 연령별로는 30대, 성별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고 있는 특징.
- 그동안 타 국가 대비 경직적이었던 한국 고용시장에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

한국의 고용시장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실업률은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고용률도 긍정적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대외교역에서의 둔화세

9월 이후 한국 경제에서의 주요 지표들은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용과 산업활동 등 대내적인 요소들인 반면 수출입과 관련된 지표는 둔화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침체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외 교역에 대한 우려가 지표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입물가지수는 두 지표 모두 고점 통과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수출입물가의 하락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을 의미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지표를 결합하여 한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지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국가 차원에서의 마진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출입의 둔화에 따른 성장궤적 기여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차트1] 2023년 하반기 이후 수출입물가에서 수출물가가 더욱 빠르게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개선.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물가의 진정세가 한국의 수출물가를 더욱 빠르게 하락시키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상황.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매우 안정적인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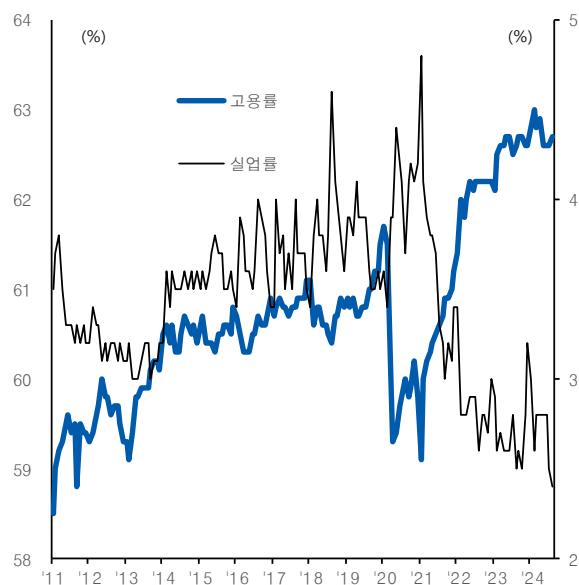
대외경기에서의 부진한 움직임 대비 내부적인 경제환경은 긍정적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고용시장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확대되고 있다.

8월 기준 계절조정 실업률은 2.4%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낮아진 결과로, 지난해 12월 당시 실업률인 3.2%에서 지속적 하락으로 동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용률 역시 안정적 상승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긍정적 흐름의 배경에는 연령별로는 30대, 성별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고용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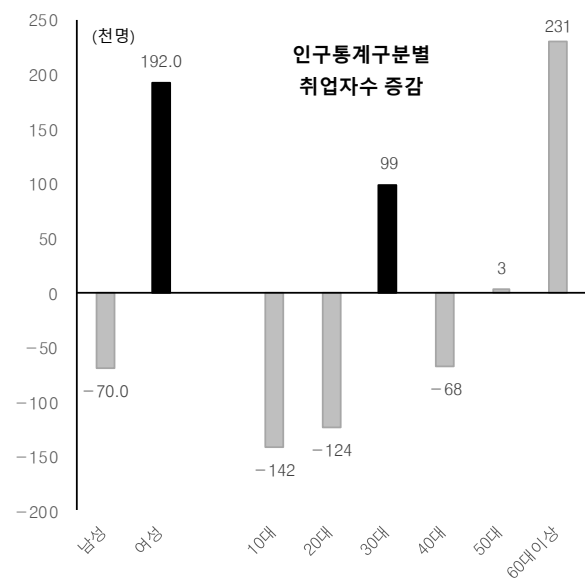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시간 등이 자유롭게 되는 환경 변화가 이와 같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타 국가 대비 경직적이었던 한국 고용시장에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차트3] 한국의 고용시장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실업률은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고용률도 긍정적.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취업자 증감 추이로 보면 여성과 30대의 취업이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모습.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산업별 대출금 추이로 보는 투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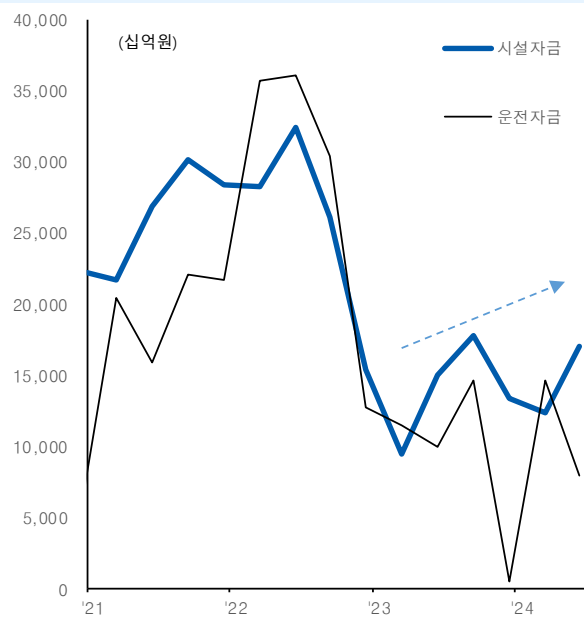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고용시장의 지속적 회복과 완전고용으로의 방향성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당연히 기업의 노동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노동력 확보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장의 매출 측면에서 상반기 기준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노동수요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별 대출금에서 시설자금대출은 건물, 기계 등의 투자 항목에서 측정되는 요소를 사용하기 위한 자금인 반면 운전자금대출은 임금, 원자재 등의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러한 두 항목의 비교에 의하여 기업의 장기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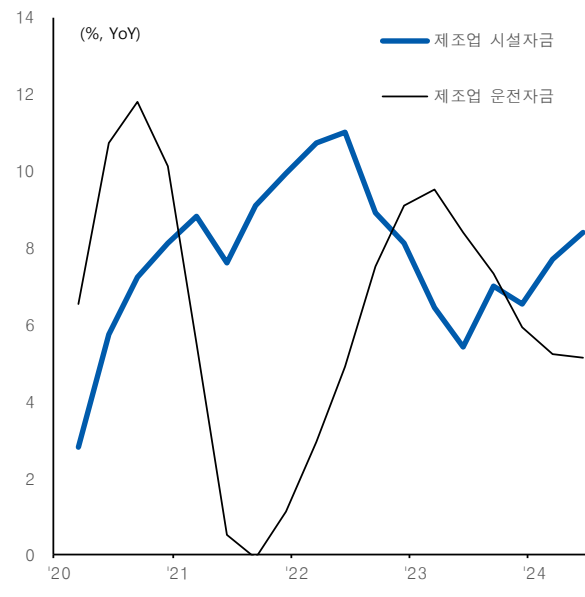
금년 2분기 기준 기업의 산업별 대출금 추이를 보면 총대출 증가폭은 1분기보다 감소하였지만 시설자금대출은 증가하였고, 운전자금대출은 감소한 모습이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수요의 자금 조달이 증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트5] 시설자금은 투자의 준비과정임으로 전분기비 시설 자금대출 증가폭이 개선되는 것은 투자경기 활성화 기대.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제조업 업종에서의 전년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의 증가세는 시설자금이 이미 변곡점 통과 후 회복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